



##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

이춘성

과거 과학은 종교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이 둘 사이가 서로 간섭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에 대한 논의와 과학과 종교와의 관계를 논하겠습니다.

### 1. 종교란 무엇인가? (신학)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정의의 한 예는 “인간이 다른 명분과 구실 아래서도 절대자를 알아 볼 수 있는 경향”이라는 Max Mueller의 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다양한 양태를 염두 해 두지 않고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과학과 종교를 논하는 데 중요한 이해를 제공 해 주기보다 신을 인간의 창조물로 보게 해 자연의 한 현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교와 기독교는 전제로 가지고 있는 신이란 용어에서부터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이 불교문화에서보다 기독교문화에서 더욱 많이 발전한 까닭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자연관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차이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관과 자연관등의 논의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신학입니다. 과학은 이런 신학의 연구 과정을 비합리적이라고 평가 절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결코 신학이 과학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며 신학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자료는 이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과학의 이론적 가정은 자료가 지녀야 할 속성들을 선택하고 공표하며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만든다. 더욱이 이론은 자료의 논리적 분석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유추와 모델의 도움을 받는 창조적 상상으로부터 나온다. 또 개념 모델은 매우 거대한 영역(천문학)과 매우 작은 영역(양자물리학)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특징들 가운데 많은 것이 종교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종교의 자료가 종교적 경험, 의식, 성서와 같은 문서 등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자료는 개념적 해석이 상당히 가미된 것이다. 종교적 표현 방식에 은유와 모델은 빈번하게 등장한다. 반드시 종교적 믿음이 엄격한 실험적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에서 발견한 탐구심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일관성과 포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관성, 그리고 유용성이라는 과학적 판단 기준과 유사한 것은 종교적 사고에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안 바버의 말은 신학과 과학의 상이하지 않은 면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이에 더욱 충실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단지 종교적이 아닌 진리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확증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중요시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조명)가 확증의 단계들에 개입함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워줌과 동시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과적인 자연법칙을 통해 초자연적인 개입을 최소화시키려는 과학자들로서는 이 마지막 말은 과학을 미신화 시키는 것이란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틈새를 '우연'이란 단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더욱 미신적일까요?

이상으로 '신학이 합리적 과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어떤 관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현대에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보는 4가지 관점

현대 기독교 내부에서는 4가지 견해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타적 이론, 독립 이론, 선택적 일치론, 동역 이론입니다. 각각의 견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1. 배타적 이론

이 견해의 핵심은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주의와 자연주의의 대결 구도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 이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내의 세력은 근본주의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 ①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과학책과 같이 봄으로 성경이 분명 물질적이 부분을 말하는 곳이 있지만 순전히 영적인 의미의 말까지도 과학으로 설명하려 듭니다.
- ②우주의 역사를 5000-6000년 정도로 보며 이 세상의 어떠한 형태의 진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으며,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타나면 이 모든 자연과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들이 창조론에 유리하게 전환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 기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과 가장 잘 들어맞는 설명이 창조론과 젊은 지구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자들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비판적입니다. 과학의 패러다임이 쿤이 말한 것처럼 혁명적으로 아무리 바뀌어 왔지만 기존의 이론은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의 성질을 뉴턴의 이론으로 하나하나의 입자로 해석해 설명했지만 현대물리학은 빛을 에너지 수준의 파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 패러다임에 대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은 빛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직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여전히 빛의 속도와 운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뉴턴의 이론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조론자들로 하여금 현대과학의 업적에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후 과

학과 기독교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 2.2. 독립 이론

이는 신 정통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이론입니다.

신 정통주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①하나님의 타자성과 초월성을 강조한다. ②원형은 단지 개인의 신적 체험에 기초하며 어떤 다른 준거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진리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다양할 수 있다.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없다. ③기독교교리에 배치된 이단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도 돕지 않는다. 다른 신학적 접근도 기독교의 믿음으로 인정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것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보완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상호 독립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는 형이상학적 영역인 인간의 구원이나 도덕, 윤리, 관계 등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형이하학적인 물질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섭할 수 없으며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겉으로는 서로 아무런 충돌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을 순전히 비합리적이며 역사와는 관계가 먼 책으로 만들어 한낱 도덕책이나 이솝우화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학과 종교를 철저히 분리한 과학자인 파스퇴르가 말했듯 “실험실에 들어갈 때 난 기독교란 가운을 옷장에 벗어 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과학적 입장은 자연주의자들과 동일합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비기독교적 저술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안 바버의 말을 들어 보죠. “과학과 종교를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면, 갈등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발전의 기회를 잃는 셈이다. 우리는 삶을 격리된 선실처럼 여럿으로 나누어 놓고 따로따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삶을 받아들인다. 삶의 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은 삶의 특정한 면모를 연구하는 개별 학문을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하나님은 독립된 종교적 영역에만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리 삶 전체의 주님이시라는 굳은 믿음을 보여주는 성서적 근거가 있다.”

## 2.3. 선택적 일치

이 주장은 다른 말로 ‘지적설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의 연구 방법과 그 결과를 신뢰하며 성경의 창조의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히려 과학이 신의 존재를 확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증거로 생화학적 증거와 천문학적 증거를 듭니다.

생화학적 증거는 생화학자인 ‘마이클 베이’의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눈이 빛을 인지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진화론자들은 생물체를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로 환원시킬 수 있듯 아주 단순한 과정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화학자인 그는 어느 과학자도 과학의 발전으로 이 과정을 단순한 과정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과정을 주관하는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문학과 물리학의 일반 상대성이론과 빅뱅이론은 대 폭발 이전에는 이 세상이 무(無)였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지지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시간이 0이었을 때 공간도 0인 무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최초 대 폭발시점의 사건을 유추하면서 흥미 있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① 팽창속도: 스티븐 호킹은 “만약 빅뱅이 있는 1초 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00억분의 1정도만 늦었다면, 그 우주는 현재의 크기에 이르기 전에 다시 찌그러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와 반대일 경우는 팽창속도가 너무 빨라 행성과 별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팽창속도는 에너지, 질량, 중력 등의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외줄을 타는 곡예사와도 같은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② 원소들의 형성: 핵력의 미세한 변화가 탄소원자의 형성을 좌우합니다. 탄소는 유기생명체의 출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③ 입자와 반입자의 비율: 초기 우주에서 반 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은 1억:1억1개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반응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1개의 양성자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모자라거나 많은 경우 우주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물리학 법칙이 입자와 반입자 사이의 대칭적이라면, 왜 초기에 이런 비대칭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류원리’를 정립합니다. 이는 관찰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찰자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인과적 설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밀하게 조율된 현상들은 설계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곳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을 말하며 과학과 기독교의 접촉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종의 발생에 대한 진화론적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종 사이에서의 변종이나 돌연변이 같은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하는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에 대한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종의 창조에는 진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 2.4. 동역 이론(유신론적 진화론, 신 다윈주의)

이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독교와 과학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며 이 둘의 분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와 도구적 자연주의의 분리를 주장합니다. 세계관으로서의 자연주의와 도구적 자연주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이 자연법칙에 따라 만들어져 있으므로 도구적으로는 자연주의의 방법을 써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생각도 자연주의적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어거스틴이 창조에 대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창조의 씨’를 심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 발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창조설에서 더 나아가 창조의 연속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창조 시 물질의 최소 단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질서를 프로그램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라는 자연법칙을 통해 창조의 과정을 인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워드 반틸은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는 자연을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독립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했던 자연신학이나, 과학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신 정통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들은 자연을 자율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진화론을 세계관적인 자연주의와 분리하여 진화론의 비과학적 요소와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과학적 요소만 있는 진화론만 남을 수 있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 다윈론자들의 진화론은 그전과 다른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진화생물학을 잘 모르기에 더욱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3. 결론 (비판적 수용)

우리는 과학과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학과 기독교의 벽이었던 합리성과 객관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통해 주신 우리의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실험을 하는 자들은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수많은 실험실 수칙과 기구를 먼저 외우고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실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실험실 윤리와 실험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험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길 기대합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과 남을 해하려하는 실험은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저는 감히 인간이 만든 이 작은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라는 실험실에서도 벌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실험실에서 어떻게 실험에 임하고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는 것이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적으로 바른 입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란 책의 4명의 저자들은 위의 여러 견해를 더욱 연구해서 자신이 취해야할 입장을 선택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처한 위치가 과학자이나, 신학자이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먼저 들으라고 말하며 상대방은 이와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복함을 모두 전제로 하고 있다면 성경이 과학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바른 성경해석과 위배되는 과학적 입장을 심사숙고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과학과 성경해석

우리는 앞에서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궁금해 하는 것은 여러 이론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들 이론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가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할 것인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각각의 관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려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귀정하는 시금석은 성경인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저와 다른 성경관과 해석 방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이 글은 성경 해석학을 위한 논의가 아니기에 성경해석학을 자세히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다른 서로의 견해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수준의 성경관과 해석적 입장을 취하여 논의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네 가지 과학과 기독교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해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해석의 1차적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라브리 정신에 나와 있는 성경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단지 작가의 산물이 아니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경험한 것을 기록한 믿음의 고백만도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오하다: 그러나 무오하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요구하는 정확성에 기준이나 체계로 볼 때도 전혀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 저자가 성경을 무오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 당시의 계산법은 지금과 다르므로 지금의 기준으로 계산할 때 당연히 틀리게 나올 것입니다. 이는 전혀 과거를 고려하지 않은 독자의 잘못이지 저자의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②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성경은 초등학교 받아쓰기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적은 책이 아닙니다. 신학자 위필드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성당 창문의 색유리를 통과하는 빛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지만 그것이 통과하는 유리의 색조에 물들여지는 것처럼, 인간의 심혼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그것이 주어지는 통로인 인간의 개성에 채색되어 나오는 것이 분명하며 바로 그 정도만큼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건축가에 의해 색유리 창이 색깔이 성당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빛에 본래의 색조와 색깔을 정확하게 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면 어찌겠는가?” 이것은 유한하고 죄인인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들어내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것을 바로 경전의식經典意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경전과 구별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보면 역사적 사실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숨은 뜻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실이지만 또한 상당수가 신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교의 특성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를 기술하여 교훈을 찾는 것을 무사치한 것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이며 역사적인 사실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결코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잠시 죄로 인해 어그러졌어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하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경전의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전의식과 다른 생각을 가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꼭 집어 둘이라고 할 수 없지만 크게 둘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경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무오성을 너무 강조해 마치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부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숫자나 시간 표기, 옷차림, 언어, 식사 등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과 우리들과의 간격이 최고 2000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최소한의 해석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매우 신성시 여깁니다. 심지어 성경 위를 넘는 것만으로도 죄의식을 갖기도 하죠. 이들을 근본주의자 또는 성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엘리트 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그리스신화와 같이 저자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기까지는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해석학의 발전입니다. 성경해석학은 18c 슬라이어마허에 의해 시작된 문법적-역사적 주해로부터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19c-20c에 나온 역사비평이라는 해석방법이 소개되고 발전됩니다. 그러나 18c-19c는 자연주의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시기이며 이시기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란 책도 출판됩니다. 바로 이런 자연주의의 전제를 바탕으로 제시된 과학적 해석학이 역사비평이었습니다. 좀더 과학적인 해석이 성경에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이것은 해석과정에만 머물지 않고 해석의 대상인 성경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길 원했습니다. (역사비평은 문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문학비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도구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던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가짜이며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은 경전도 아니며 신화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c 바르트나 볼트만과 같은 신학자는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게 됩니다. (바르트의 신 정통주의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볼트만의 성경해석은 신화화된 성경말씀을 비신화화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 텍스트를 연구하는 방법은 역사비평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을 끌어올 수 없었고 결국 볼트만은 성경 안에 있는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비신화화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비신화화란 성경의 말씀이 읽고 있는 사람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인 말씀을 상대화 시켜 더 이상 진리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전제인 자연주의에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성경에 자연주의의 전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과 같은 어색함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먼저 배타적이론은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창세기 1장의 시간 개념을 지금의 하루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를 5000-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의 시간 단위를 정확히 알

려면 그 당시의 기준을 연구 조사해서 하루에 대한 바른 시간의 정의가 필요 합니다. 그러나 창세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가 전혀 없는 시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경에 쓰인 그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지구과학이나 천문학, 물리학을 통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문이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 성경해석에 사용하는 것 또한 역사학이나 사회학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라브리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 성경은 명확하고 명쾌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예를 들어,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 부활, 최후의 심판 등), 모든 성경이 그와 같이 동일하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이 말 그대로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한 6일인지, 아니면 매우 오랜 기간을 하루로 계산한 6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로 독립이론을 보겠습니다. 독립이론은 성경은 과학과 별개인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볼트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비신화화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인간의 존재의미와 같은 추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은 성경에서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무오하지도 않으며 사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삶 속에만 의미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이 삶은 이원론적입니다.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데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성경적이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부를 기차간과 같이 명확히 나누어 성경적 세계관을 왜곡하거나 상대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전제는 자연주의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인 선택적 일치와 동역이론은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유는 이 둘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 이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진화론을 어디까지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둘은 주로 성경관의 차이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순수하게 성경해석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전제는 바로 그 사람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를 점검 해봄으로서 이들의 성경해석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적 일치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디자인 하셨고 지금도 계속 개입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앞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명령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역이론은 위의 전제에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적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일치는 하나님의 개입을 최대화하려는 반면 동역이론은 하나님의 개입을 최소화 하려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동역이론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창조의 씨앗에 모든 것을 다 입력하시고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인류를 탄생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인정하면서도 기적의 의미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변증을 위한 도구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루이스와 같이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서 주의 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센(Hansen)박사는 루이스가 이원론적 전제를 가지고 자연과 기적을 접근한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철학자인 루이스가 창조에 대해 이원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자연적 세상과 창조물에서 특별한 증표를 찾을 수 없게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찌라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기적이 요구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내 전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물 그 자체가 매우 미세한 부분까지 풍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고귀한 표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대상을 위한 변증의 이유가 아니라면, 동역이론자들은 자신의 전제가 자연주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역사비평과 같은 성경해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찌라도 그들의 전제가 자연주의라면 그 결과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역이론자들은 도구적 자연주의와 세계관으로서의 자연주의를 엄격히 구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의 고유영역을 확보하려는 좋은 의도로 인정할 수 있지만 명확히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위에서 논의했습니다. 과학은 질서의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과 연결 되지 않고 도구에만 집착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까요?

양편에서 진화론을 인정하지만 그 수위와 의미는 다릅니다. 동역이론은 진화론을 하나님의 역사 진행 양식(framework) 내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선택적 일치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의미 또한 선택적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이 차이는 동역이론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연구하는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수뿐 아닌 한 법칙 안에서의 질적인 부분에까지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물체의 자유낙하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안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아닌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과학 활동들은 이 세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가정을 찾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린 과학적 방법들에 대한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진화론 또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적이며 하나의 양식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른 성경적 전제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sup>1)</sup> 이와 같이 동역이론은 몇몇 부분에서 전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우린 다양한 전제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성경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을 무의미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술수임이 분명합니다. 성경해석의 역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Vern S. Poythress교수는 쿤의 이론을 통해 성경 해석의 두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말합니다. 바로 종교개혁과 역사 비평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과는 판이 하게 다릅니다. Poythress교수는 그 이유를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비평의 전제가 자연주의와 과학주의 형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경의 신화 화였습니다. 이문장 교수는 이전에는 성경의 무오성은 기독교인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은 꼴이 된 것 입니다.

동역이론에 우려되는 것은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창조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나치지 않고 겸손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진화과학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정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과거보다 더욱 우세한 위치를 선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진화는 기독교의 적이라고 규정한 편견을 바로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화과학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온 우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역이론은 자연주의로부터 분리되려고 노력하지만 진화론은 전제가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근간으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창세기1장의 창조를 해석할 경우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사비평이 창세기1-14장을 신화로 귀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 자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더 이상 창조를 설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설명 해 주지 않지만 기록된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창세기1장의 내용이 현대인들에게 창조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역부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안다는 것은 수 만장의 종이로도 부족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린 이해하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세계관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균형 잡히게 합니다.

## 참고서적

텔라치, 과학철학, ivp, 2002

이안 바버,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김영사, 2002

모어랜드·레이놀즈,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ivp, 2001

필립존슨, 다윈주의 허물기, ivp, 2000

호이까스, 과학과 기독교, ivp,

존 로지, 과학철학의 역사, 동연, 1999

국제 라브리, 라브리 선언문, 한국 라브리, 1996

Michael J. Behe, Darwin's Black Box, FREE PRESS, 1996

Richard F. Carlson, Science & Christianity Four Views, ivp, 2000

Alister E. McGrath, Science & Religion AN INTRODUCTION, Blackwell,1999

C. S. Lewis, Miracles, The Complete C. S. Lewis Signature Classic,

Harper San Francisco, San Francisco, 2002.

C. S. Lewis, The Great Divorce, The Complete C. S. Lewis Signature Classic,  
 Harper San Francisco, San Francisco, 2002.  
 프랜시스 후쿠야마, Human Future, 한국 경제 신문, 2003  
 Vern S. Poythress, SCIENCE AND HERMENEUTICS, APOLLOS, 1988  
 Dan McCartney, Charles Clayton, Let The Reader Understand, P&R, 2002  
 John-Erik Stig Hansen, M.D., D.Sc., Do Miracles Occur?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연구, 이레서원, 2003  
 권성수, 성경해석학, 총신대학출판부, 1991

---

1) 라브리 선언(성경 해석학)

- 아) 좀 더 고차원적으로(좀 더 높은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등 비평'의 학문적 도구(원어주해, 문헌비평, 역사적 배경 연구 등)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고등 비평'의 이론과 방법들(근원, 양식, 편집, 문체 비평(수사적 비평?), 문헌 비평이론, 철학적 해석학, 해방 신학이나 여성 신학과 같은 사회 비평적 해석학 등)은 성경의 내용을 밝혀줄 수도 있지만,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고 '고등 비평'에 관한 철학적 틀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사용해야 한다.
-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고등 비평의 전문적 기술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성경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통찰이 가능하며, 모던과 포스트모던 이론으로 오도된 사람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며, 필요하다면 고등 비평의 폐단을 진단할 수 있는 신빙성을 얻을 수 있고, 계시된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고등 비평을 사용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 고등 비평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책의 내용보다는 비평 이론에 치중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기술적 능력이 없는 신자들에게 대해 지적인 교만을 가질 수 있으며, 성경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으며, 고등 비평이론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결함있는 전제들을 자기도 모르게 확신할 수 있다.
- 고등 비평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자격을 갖춘 사람과 분별있게 교류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등 비평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통찰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고등 비평의 현재 양상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통제하는 것이라면,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주권을 사실상 부인하거나, 심지어 복음의 내용 자체도 부인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